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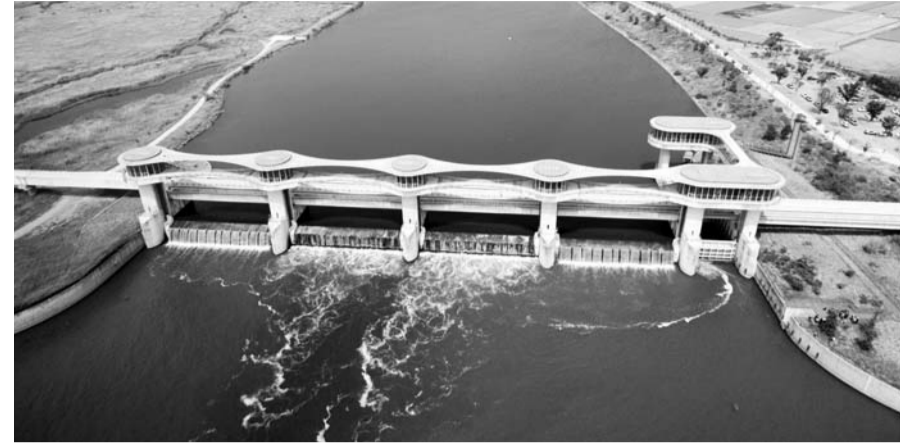
한빛원전 4호기 공극 심각·흑산공항 건설 찬반 논란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 외벽에서 8cm 이상 공극이 다수 발견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총장로 한 커피전문점 앞에서 일회용품 사용의 환경문제를 알리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나주 다시면 영산강 축산보의 수문이 개방돼 2개의 수문에서 흐르는 물이 흰 거품을 내며 하류로 흐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18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 한빛원전 4호기 공극 발견, 카페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올해 환경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잇따랐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광양·목포·순천·여수·장흥)이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공극 심각-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 외벽에서 8cm 이상 공극이 다수 발견됐고 구멍은 운할유로 가득 차 있었다. 3호기에서도 공극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빛원전의 부실시공을 인정했다. 지난 7월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원인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4호기 폐쇄 운동을 전개했다.

◇흑산공항 건설 계획 추진-국토교통부

대형 축사 건설·광양 바이오 발전소 건설 주민 피해 반발

신안·보성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영산강 보 개방 확대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단속·광주 민간공원 난개발 우려

는 흑산도에 국비 1833억원을 투입, 정원 50명 규모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길이 116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섬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는 측과 환경 훼손과 경제성을 우려해 반대하는 측이 맞섰다. 공항건설 사업은 결국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파행을 거치면서 중단됐다. 환경연합은 공항 건설보다는 연안여객선을 버스과 철도,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축사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와 반발-전남지역 여러 지자체가 허술한 조례를 파고든 무분별한 대형 축사(돈사·우사) 건설 문제가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 정정지역으로 알려진 완도군을 비롯해서 진도군·

순도군·화순군 등에 기업형 대규모 축사 건립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가축사육량이 가장 높은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은 축사·퇴비시설 악취로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조례제정을 통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설정, 가축사육 허용 제한 조력 강화, 지역별 축산 총량제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광양바이오 발전소 건설 논란=16기의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된 광양만에 수일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서면 지역민들은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물질이 다량 배출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올해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반대 논란도 컸다. 태양광 발전 때문에 산림이 훼손되고 경관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제 강화로 일단락됐지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도시나 산단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신안·보성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양수산부는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안갯벌과 보성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 두 갯벌은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칭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올해 영산강 축산보까지 수문이 완전 개방됐다. 작년 보 상시 개방을 시작으로 개방을 확대한 결과, 영산강 경관 회복을 비롯한 수질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서는 녹조 문제 등 수질 악화가 심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를 개방했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환경연합이 진행한 영산강 퇴적도·수질 조사 결과 고정보가 있는 지역은 수문이 열

려 있는 구간 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시대 열다=30년 논란 끝에 올해 드디어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 수자원과 수질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또 영산강·섬진강 유역권 수질·수량에 대한 통합 물대책 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하천사업 업무는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고 농업용 댐 등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완전한 일원화에는 못 미쳤다. 또한 지자체의 물 관리는 여전히 이원 체계라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여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여수 만흥동에서 소라 덕양까지 전라선 옛 기차길 공원 1단계 구간 16.1km가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됐다. 올해 1월에 만흥동에서 둔덕동까지 7.7km를 우선 개방한 이후 인제 총 16.1km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만흥-오림터널-미평-원학동-선원프레-양지바름 등 6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

다. 이 사업은 기차 폐선을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단속 시행=지난 4월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단으로 재활용쓰레기 수거대란이 일어났다. 또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 발견 등으로 생활·일회용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문제 등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규제가 시행됐다. 일부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맡겨진 광주 도시공원-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공원조성 카드를 들었다. 공공성 시비, 난개발 우려로 논란이 컸던 1단계(수암, 마북, 송암, 봉산 공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중앙·중와-일곡 등 6개 공원이 2단계로 시작됐다.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계약평가 등에 부실이 있었다는 광주시 감사발표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논란이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미세먼지 원인 물질에 대기 배출 부과금 도입

미세먼지 등의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기 배출 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이다. 그 자체에 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은 먼지, 황산화물 등에만 부과되던 대기 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질소산화물 1kg당 부과 단가는 2130원으로 정했다.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은 초과·기본 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기본 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 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사·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서구 라돈측정기 25대 무료 대여

광주시 서구는 라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라돈측정기(사진) 무료 대여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8월부터 라돈측정기 5대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라돈측정기 20대를 추가 확보했다.

무색·무취·무미의 기체인 라돈은



자연방사선 물질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폐 조직을 파괴시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올해 구청에서만 대여 가능했던 라돈측정기는 내년 1월부터는 주민센터에서도 대여가 가능해진다.

라돈측정기 대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녹색환경과 전화(062-360-7655)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대기질 정보 실시간 제공 '에어코리아' 새단장

전국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가 확 달라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에어코리아'를 전면 개편해 24일 정오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4799건의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시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기능을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대기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했고, '실시간 공간포포' '대기오염 통합지도' 등 새로 도입한 서비스를 통해 대기질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파란색 등 최소한의 색상으로 메인화면을 재구성하고,

대기질 정보를 파랑·초록·노랑·빨강 등으로 시각화해 가시성을 높였다. 또한, 지도 영역 우측에 대기질 농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기판 형태로 나타내고, 과거 24시간 농도 변화 추이를 제공한다.

대기질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지역의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공간포포', '대기오염 통합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했다.

박문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에어코리아에서 다양한 대기질 정보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